

# 비로소 주목되는 우리땅의 자연환경

## 동식물 생태 다룬 각종 도감류 출판 잇달아

기계화를 비롯한 농지의 획일화, 나날이 낮아지는 살충제의 효과, 인공화된 토양, 야생 자원의 남획, 상거래와 위락시설 등으로 야기되는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자연지역의 인위적인 개발, 인구증가에 따른 압박 등으로 생물의 멸종위기는 지난 3백년동안 5배에서 50배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금세기 말에 이르면 절종의 속도가 지금보다 약 10배나 가속화하리라는 학계의 추정이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는 이미 깨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이러한 학계의 추정은 인간에게도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 생태계 보존해야 인간도 살 수 있어

최근들어 서점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환경관련도서의 출현과 더불어 한국의 자연에 대한 도감류 도서는 인간생존의 위기상황과도 결부된 우리의 생물자원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뜻있는 이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인위적인 것을 모두 떠난 자연생태계의 현상을 조망하고 있는 이들 도서는 그 학문적 특성상 현장기록적인 성격이 강하다. 다양한 문헌자료를 비롯해서 전국각지에서 촬영한 생태사진이 1차자료가 되는 것이다. 생태관련도서는 특히 사진촬영, 녹음 등 현장작업이 요구하는 오랜 시간과 품으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아직은 그 수준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목할 만한 성과로 꼽히는 한국의 생태학 관련 도서가 꾸준히 출간되고 있어 한국의 자연연구에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다.

대부분이 도감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들 도서는 ‘어떤 모양으로 생물이 생존하고 있는가’라는 현상에 집중적으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한국의 동식물에 관한 생태를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새나 곤충, 더 나아가 텃새나 칠새, 버섯, 거미 등으로 분화해서 출간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또 한국의 자연에 대해 특이한 사진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는 책도 다수 있다.

책에 실린 사진들은 생태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작가에 의한 작품으로 미적감각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는 것도 이들 도서의 한 특징이다.

한국의 꽃이나 야생화에 대한 책을 많이 출판한 이는 한국야생화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정씨. 「한국의 야생화」(동화) 「한국 야생화 도감」(교학사) 「집에서 기르는 야생화」 「한국의 고산식물」(대원사)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꽃 백가지」(현암사) 「어린이 식물도감」(예림당) 등이 모두 김태정씨가 출간한 것들. 이밖에 「한국의 꽃과 나비」(김만희, 상미사), 「한국의 야생화」(송기엽, 평화) 「꽃사진」(최광렬, 서문당) 「한국식물검색도감」(고경식, 아카데미서적) 「원색한 국수목도감」(조무행, 아카데미서적) 「대한식물도감」(이창복, 경문사) 「산과 들의 계절식물」(주상우, 참한) 「한국의 버섯」(박완희 외, 교학사) 「백두산의 꽃」(이영노 엮음, 한길사) 등도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에 대해 그림이나 사진과 함께 설명을 곁들이고 있는 것들.

「집에서 기르는 야생화」는 종자채취와 옮겨심기, 물주기, 거름주기 등 집에서 야생화를

생물의 멸종위기는 지난 3백년 동안

5배에서 50배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금세기 말에 이르면

절종의 속도가 지금보다 약 10배나

가속화하리라는 학계의 추정이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는 이미 깨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이러한 추정은

인간생존의 위기도 말해준다. 생태계

도감류는 자연보호의 시작을

알리는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기르는데 필요한 상식과 함께 식물의 특성, 서식지, 모양, 꽃에 얽힌 전설이나 이야기, 꽃말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태정씨는 이 책에서 “한국의 야생꽃들은 비록 작고 화려하지는 않으나 그 꽃의 모양과 온화한 색깔, 그윽한 향기는 외지의 것에 비해 다른 맛이 있다”며 집에서 기르기에 별다른 기술이 필요없다고 적고 있다. 「어린이식물도감」은 꽃이 화려한 나무 65종, 풀 250종 등 65과 315종의 식물에 대해 외형적 특징, 꽃피는 시기, 열매 맺는 시기, 용도, 독성의 유무 등을 어린이들이 쉽게 보고 익힐 수 있도록 꾸몄다.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꽃 백가지」는 계절별로 야생화를 분류하여 생태와 용도, 제각기 불리는 속명, 이름의 유래, 전해지는 이야기, 분포도 등을 실었는데 특히 분포도는 저자가 직접 산야를 뒤지면서 작성한 것을 그려놓았

다. 또한 백두산에 피는 노랑만병초, 가솔송, 분홍바늘꽃, 구름송이풀 등 12종의 야생화도 소개하고 있다.

백두산에 피어나는 꽃들만 모아놓은 「백두산의 꽃」은 다른 저작물들과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데 백두산의 역사와 화산활동 등 전반적인 개관을 다루면서 식물화보, 임산자원, 약용식물, 식물목록을 함께 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식물중에서도 특정한 것만 가려서 엮은 책이 있는데 「한국의 버섯」이 대표작이라 할만하다. 여기에는 380종의 버섯과 점균류 9종의 원색사진이 있는데 발생장소·시기, 버섯의 형태·식용여부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 버섯사전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버섯과 마찬가지로 산이며 들에 자라나는 식물들 중에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중에는 또한 약재로 많이 쓰이는 식물들이 대단히 많은데, 「약이 되는 야생초」 「약용식물」(김태정, 대원사) 「원색약용식물도감」(유창수, 아카데미서적) 등은 식물 중에서도 약으로 사용 가능한 것들만 모아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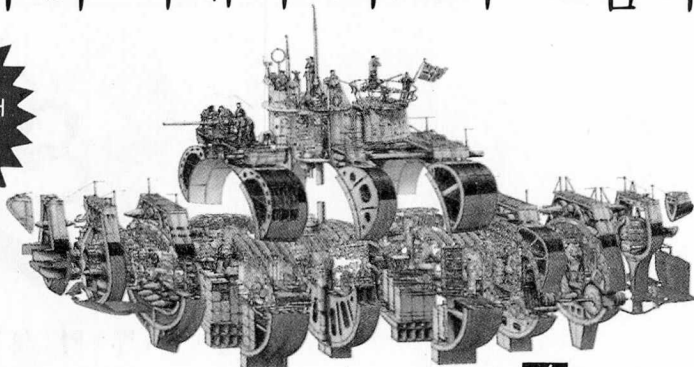
위 책에는 구절초, 흰민들레, 씀바귀, 영경귀, 쑥, 질경이, 고비, 냉이, 명아주, 쇠비름 등의 사진과 각종 문헌을 참조해서 식물의 계절별 약효부위, 치료가능한 병명, 채취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

### 한국의 동식물에 대한 도감류가 대부분

동물에 관한 도감이나 서적 또한 적지 않다. 학계의 이론을 떠나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꾸며져 있는데 그 분야가 새, 민물

## 우리 시대의 최고의 그림책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세계 16개국에서 동시 출판된 초특급 베스트셀러!



• 값 7,500원

탱크, 점보 제트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지금까지 걸 모습만 보아 왔던 거대한 구조물 18가지를 가로 세로로 세밀하게 잘라, 그 내부의 구조며 명칭을 아주 자세히 보여 주는 희한한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부터 건축·미술의 전문가까지 누구나 한 번은 꼭 봐야 할 이 시대의 뛰어난 가족형 그림책 「크로스 섹션」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울컬러·양장본/책크기 27cm×36cm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1



한국의 새, 꽃, 나무, 곤충,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도서들이 늘고 있다.

고기, 곤충에 한정되어 있고 여타 바다생물은 아직까지 출판된 책이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선 한국의 새에 대한 책들을 살펴보면 윤무부교수의 저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외에 「원색한국조류도감」(아카데미서적 편집부)와 「한국의 천연기념물-조류편」(원병오,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새, 천연기념물」(원병오, 범양사) 등이 있다.

한편 민물고기에 대한 연구는 최기철 박사의 저서가 많이 있는데 「민물고기」(대원사) 「민물고기를 찾아서」 「민물고기 이야기」(한길사) 「한국담수어도감」(경문사) 「한국의 민물고기」(서문당) 등이 대표적이다.

최기철박사가 밝히고 있는 우리나라(휴전선 이남)의 어류는 담수산 24과 145종에 이른다고 한다. 「민물고기」에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종, 고서에 나오는 종, 천연기념물, 멸종위기·멸종고기로 나누어 각종에 대하여 출현빈도, 크기, 모양, 색깔, 식생, 서식지, 산란기, 문헌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민물고기는 붕어, 피라미, 끄리, 잉어, 버들치 등 63종, 「향약집성방」 「경도잡지」 「난호어목지」 「동의보감」 「열양세시기」 등의 고서에 나오는 뱀장어, 용어, 누치, 황어, 붕대뱀어 등 120종, 무태장어·어름치·열목어·황쏘가리 등 천연기념물 4종, 그리고 점물개·꾸구리·돌상어·미호조개·서호납줄갱이 등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멸종된 고기 8종 등이 설명되어 있다.

「민물고기를 찾아서」와 「민물고기 이야기」는 민물고기에 얽힌 이야기나 문헌자료를 살펴보고 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또한 민물고기의 생태를 이야기로 풀어서 설

명하고 있어서 어린이와 함께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한국의 곤충에 대한 도서로는 「한국의 곤충」(남상호, 대원사) 「원색한국곤충도감」(신유항, 아카데미서적) 등과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나라 백가지」(이원규·김정환, 현암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은 마을, 풀밭, 높은 산에 사는 나비 등으로 서식지에 따라 나비를 분류하고 사진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로 나비를 설명해 주고 있다.

한편 야생동물에 관한 도서는 「한국의 야생동물」(윤명희, 대원사)이 있는데, 이 책은 한국산 포유류 8목 28과 63속 96종 14아종 중 수중생물을 제외한 6목 20과 49속 78종 13아종을 수록, 서식현황·습성·먹이·서식지·번식 등의 생태와 분포를 설명하고 있다.

#### 국가적 차원에서의 학계연구 필요해

또한 최근에 발간된 「천연기념물」 동물편(원병오)과 식물편(임경빈)은 우리가 꼭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줄 천연기념물을 총정리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동물편은 희귀 및 절종위기 야생동물의 실태와 보호, 천연기념물보호의 역사적 배경과 선정 기준들을 살펴보면서 포유류 10종과 조류 42종 및 서식지, 어류 7종 및 서식지, 곤충류 2종 등의 현실태, 분포, 서식지, 형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종의 새가 절종되면 곤충은 90종 이상, 식물은 35종, 어류는 2, 3종 가량이 함께 멸종되어 버린다」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천연기념물의 보호는 급박한 현실로 다가온다.

식물편은 목본과 식물에 관계되는 것 204점

을 원색사진과 함께 싣고 있는데 천연기념물의 문화적 성격,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종해설, 사례별 해설 등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천연기념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인식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실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의 자연에 대한 책으로는 아카데미서적에서 출판한 한국의 자연시리즈인 「韓國의名山」 「한국의 동굴」(석동일) 「한국의 산」(김근원·김상훈저), 그라피카의 「한국의 사계」(김보환) 등이 있는데 특히 「한국의 동굴」은 동굴의 생성과 그 2차 생성물을 살펴보면서, 관음굴·환신굴·초당굴·지승굴·협계굴·쌍용굴·발레못굴 등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실려 있다. 또한 남한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12장 34목 2백여종의 동굴동물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고 있는데, 한국의 동굴동물중에서 대표적인 동대갈라와벌레는 세계최대종으로 38.5mm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종으로는 반도굴아가거미를 거론하고 있으며 이들 동물의 사진과 형태, 분포상태, 생태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책들은 학술적인 연구성과라는 측면보다 자연보호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책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 분야의 연구층이 얇다는 것도 지적하면서 출판사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작업을 통한 다양한 자연보호 도서가 출간되어야 할 점도 과제로 남는다.

—이성수 기자

## “나는 정신세계사의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정신세계사의 돋보이는 책들

#### □ 성자가 된 청소부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감동의 영적 소설/바바 하리 다스 지음/류시화 옮김/4,000원

#### □ 빠빠라기

처음으로 문명을 본 남양의 추장 투이아비가 들려주는 문명의 우스꽝스러운 본질/최서립 옮김/3,500원

#### □ 털없는 원숭이

인간적 행위의 동물적 의미를 들추는 냉철한 인간 성찰/테스먼드 모리스 지음/김석희 옮김/4,000원

#### □ 파라독스 이습 우화

인간과 삶에 대한 신선한 역설이 담긴 '전혀 다른' 이습 우화/로버트 질러 지음/김정우 옮김/3,200원

#### □ 파라독스 중국 우화

루쉰, 귀보뤼 등 중국 현대 작가 22인의 우화 선집/루쉰 외 지음/이효립 엮고 옮김/3,500원

#### □ 자유를 위한 변명

구도의 춤꾼 홍신자의 자유롭고 파격적인 삶의 이야기/홍신자 지음/5,000원

#### □ 신의 뜰에서 놀며(상·하)

대자연과 인간의 존엄을 그린 미국 문단 거장의 장편소설/피터 매티센/김석희 옮김/각권 4,500원

#### □ 세계의 공동체마을들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16개국 공동체마을의 이념과 생활상/올리버 포피노 외/이천우 옮김/6,000원

#### □ 식물의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한 책/피터 톰킨스 외/황정민 옮김/7,500원

#### □ 초인생활

히말라야 초인들의 초자연적 세계를 목격한 한 미국인의 기록/베아트 T. 스펀딩/정창영 옮김/7,000원

#### □ 달마

라즈니쉬가 특유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강의, 해설한 달마어록/오소 라즈니쉬/이연화 옮김/7,500원

#### □ 건강도인술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켜 주는 중국 3천 년의 건강 비법/하야시마 마사오/김종오 옮김/5,500원

#### □ 건강기공

동양적 건강법의 총체인 기공의 원리와 상세한 수련 방법/이동현 지음/4,500원

#### □ 나를 접쳐 본다

동서고금의 모든 방법으로 알아보는 나의 성격과 운명/다이어그램 그룹/정현숙 옮김/6,000원

#### □ 한단고기

사대주의와 식민사학에 밀려 천여 년을 떠돌던 문제의 역사서/임승국 역주/7,000원

#### □ 丹

민족의 역사와 미래, 정신수련법을 다룬 민족 소설/권태훈 증언/김정현 지음/3,500원

#### □ 大東夷(전5권)

소설로 엮은 최초의 한민족 대고사, 민족의 자각을 드높인다/박문기 지음/각권 4,000원

#### □ 옛 詩情을 더듬어

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 빼어난 우리 한시 300여 수를 평설/손종섭 편저/8,500원

#### □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문화

우주의 원리가 숨쉬는 秘典 《天符經》의 심오한 세계와 우리 고유의 문화/권태훈 지음/9,000원

#### □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수련법을 정리, 해설한 책/봉우권태훈 엮 김수/정재승 편저/6,5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정신세계 전문 「책방 정신세계」 741-7033(통신판매회원제 운영)